

聖穴寺

石造毘盧舍那如來坐像의

한 고찰

文 明 大

一 머리말

聖穴寺^①의 石造毘盧舍那如來坐像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불상이다^②.

지난 一九七六년 七月 十七일 부터 二十四일 까지 부석사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미술과 佛敎美術實習特講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곳 성혈사의 스님이 알려주어 七月 二十三일 불상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 불상은 浮石寺의 慈仁堂에 있는 석조여래불상들이나 毘盧寺의 석조불상들과 다 같은 계통의 양식으로 아마도 같은 시대, 같은 流派의 조각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불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다른 많은 同系統의 불상들과 함께 同時代의 불교조각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불상의 現狀과 樣式을 다른 불상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製作年代 문제 까지를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二 現狀

불상은 현재 聖穴寺에서는 유일하게 오래된 건물^③인 羅漢殿 안에 모셔져 있다. 나무로 된 佛壇이 佛像臺座를 완전히 가리고 있어서 전면

보이지 않고 佛身만 노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주위로 石造羅漢像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최근의 작품들인^④ 모양이다.

이 불상은 현재 光背가 없어졌을 뿐 臺座는 좀 파괴되긴 하였지만 그대로 있으며, 佛身은 꽤 잘 남아있는 셈이어서 그래도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할 것이다.

佛身

이 불상은 얼마 전에 새로 단장하였기 때문에 옛스러움이 많이 없어졌다. 머리에는 肉髻가 뚜렷한 편이고 머리칼은 螺髮로 되었다. 얼굴은 둥근 편이며 심한 팽창형은 아니어서 桐華寺 毘盧舍那像의 얼굴형에 가깝다. 눈이나 코·입 등이 작고 단정한 편이어서 얼굴 전체의 감정노출이 없는 점과 더불어 참신하는 禪師의 날카로운 얼굴을 연상하게 해 준다.

물론 이 불상도 당시의 通例대로 군살진 턱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명확한 三道로서 목을 나타내고 있다. 귀는 짧으면서 폭이 넓은 편인데 이런 점 역시 桐華寺像系統과 비슷하다. 어깨나 가슴 등은 그렇게 위축된 편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가슴에 두 손을 모아 智拳印을 한 자세 때문에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갖게 되었으며, 이런 점은 옷주치의 근육 표현도 매우 현실적으로 처리한 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손의 印相은 가슴에 두 손을 모아 왼손을 밑에, 오른 손을 위에 두고 왼손 두 째 손가락을 오른손 주먹속에 넣는 전통적인 지권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오른 손은 없어진 것을 최근 補修한 것이다. 다리는 結跏趺坐의 모습인데 양쪽 무릎이 꽤 깨어져 나갔다.

옷은 通肩衣인데 주름은 주로 평행계단식으로 빚은 것처럼 얇게 조각하고 있다. 배에 떠 매듭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으며 오른쪽 배에 오른팔 안쪽에서 흘러내린 U형 옷자락이 있는데 이 시대에 흔히 보이는 수법이다. 다리의 옷은 양발을 덮어 내리지 않고 다리에 걸치는 형식인데 주름은 주로 두 어깨, 두 팔목과 팔꿈치, 두 발목 부근에 밀집해 있는 편이다.



聖穴寺石造如來坐像

크기..온몸높이(全身高) 八一·五cm, 머리높이(頭高) 二九cm, 얼굴높이와 너비(顔高 및 幅) 一六·五cm, 무릎너비 六五·五cm, 무릎높이 一八·五cm.

臺座

이 불상의 대좌는 지금 나무로 된 佛壇에 가리어 잘 살필 수 없다. 그러나 겨우 틈새로 비집고 아쉬운대로 간략하게 실측은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좌는 불상보다도 훨씬 파피가 심하다. 뿐만 아니라 나무불단에 맞추기 위하여 불상을 높이기 까지 하고 있다. 대좌의 형식은 이 시대에 유행된 八角臺座로서 上·中·下臺의 三단 대좌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아래에는 四각으로 된 二단의 地臺石이 있고 그 위에 八葉伏蓮의 무늬가 새겨진 둥근 돌의 받침이 놓였다.

이 위에는 八각의 中臺石이 있고, 補充한 나무토막이 있으며 다시 仰蓮의 연화문上臺石이 있다. 연화문 양식은 물론 부석사자인당 등이 당시의 연화문 양식을 충실히 따른 것이며, 대좌 형식 역시 이 시대의 통식인 것이다.

자리높이(臺座高) 八一cm.

三 佛像의 樣式과 年代

技法

이 불상은 둥근조각(丸彫)으로 뒷면까지 세세하게 새기고 있다. 조는 수법은 섬세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가령 옷주머니 같은 것을 알기 쉽게 칼로 빛은 듯이 쪼은 점이라든가 손 같은 데서의 약한 선 처리 등 어쨌든 전체적인 툃치가 매우 섬세한 편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윗팔 같은 데서는 옷주름을 음각선으로 처리하고 팔목이나 어깨에서 내려오는

주름 등은 평행계단식으로 한 二중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동화사불상과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섬세한 처리는 물론 대좌의 연꽃무늬에서도 잘 나타나서 당시의 통식대로 섬세하면서도 화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물론 대좌의 구성이 복잡한 것과 잘 어울리는 것이다.

樣式

이 불상의 양식을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자.

첫째로 構圖는 광배와 脇侍菩薩들이 없어서 잘 알 수 없지만 우선 대좌와 불상과의 관계에서만 살펴보면 대좌와 불상이 一·一·一 즉 대좌의 높이와 불상의 높이가 같은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부석사 자인당 불상 같은 이 당시의 불상에서 유행하던 구도이다. 또한 머리·온몸(全身)의 비율은 一·二·八이며 얼굴·온몸의 비율은 一·五(弱)인데 이 역시 九세기 후기의 여러 불상과 비슷하며 특히 동화사상과 비슷한 것 같다. 이러한 형태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체구와 함께 현실적 사실주의 조각인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힘차고 활달하면서도 긴장감이 있는 그런 형태는 사라지고 조용히 앉아 참선하는 禪師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불상인 셈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불상의 전체적인 윤곽선이나 옷주름선의 처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것은 가냘픈 선이며, 힘이든가 긴장감이 거의 없는 그런 선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도나 형태나 선들은 하나의 양식 즉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으로 조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물론 九세기 후기 불상의 양식인 것이다.

年代

앞에서 논하였다시피 이 불상의 연대는 불상의 현상에서도 九세기 불상 특히 동화사 불상이나 부석사 불상 등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물론 기법이나 양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불상

의 연대는 자연히 九세기 후기 그것도 동화사 불상(八六三年)과 앞서서 뒤서거나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九세기의 三·四分기인 八六〇년대의 불상조각으로 추정해야 될 것이다.

(註)

- ① 聖天寺는 풍기에서 부석사로 가는 도중 순흥읍에서 소백산으로 약 二〇여 리 북쪽으로 올라간 조그마한 절이다(樂州郡 順興面 德峴里)。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石造 毘盧舍那如來坐像이 있는 毘盧寺가 있고, 초암사도 가까이 있다. 하루에 한번 버스가 다니는 곳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 ② 黃壽永博士의 敎示에 따라 調査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國博에 보관되어 있는 古蹟 調査報告(조선총독부조사보고서)에 이 佛像의 調査記 錄이 간략하게 있는 것을 우연히 찾아내었다.
- ③ 아마도 壬亂 직후의 진물로 추정되며 丹青과 壁畫들이 古態를 간직하고 있어서 美術史研究에 하나의 資料가 될 것 같다.
- ④ 釜山 모대학 여자교수의 작품이라고 전하는데 사실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東國大學校 助教授)